

2017년 국가직 한국사 9급 해설(마책형), 4월 8일 시행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과 ㉡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2권 189쪽 / 필기노트 77쪽

- | |
|--|
| <p>○ ㉠은(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하였다.</p> <p>○ ㉡은(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p> |
|--|

- ① 관등 승진에서 중위제(重位制)를 적용받았다.
- ② 중앙 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하였다.
- ③ 자색(紫色)의 공복을 착용하였다.
- ④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1. 정답 : ①

㉠은 설총, ㉡은 최치원 두 인물의 신분은 '6두품'이다.

- ① 골품제로 인한 신분적 제한에서 오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타협안으로 중위제를 시행하여 6두품 출신의 아찬 관등 소지자가 중아찬(重阿飡)에서 4중아찬에 이르기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② 6두품은 6관등(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며, 상대등·중시·각 부령 등 중앙 장관은 될 수 없었다. ③ 6두품은 비색·청색·황색 관복까지 입을 수 있었으며 자색 관복은 입을 수 없었다. ④ 신라 상대에는 성골 출신이, 신라 중대에는 진골 출신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2. (가) ~ (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본서 1권 88~90쪽 / 필기노트 20~21쪽

(가)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보기>

- | |
|--|
| <p>ㄱ. 태학을 설립하였다.</p> <p>ㄴ. 진대법을 도입하였다.</p> <p>ㄷ.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p> <p>ㄹ.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p>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 정답 : ②

(가) 고구려는 미천왕 대인 313년 낙랑군을 축출하고 (다) 장수왕 대인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475년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ㄱ. 태학 설립은 소수림왕 대인 372년, ㄴ.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는 광개토 대왕 대인 400년의 일이다.

ㄴ. 진대법의 실시는 고국천왕 대인 194년, ㄷ. 천리장성 축조는 631년에 시작하여 647년에 완성되었다.

3.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본서 1권 245쪽 / 필기노트 71쪽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중략)… 리(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 『비변사등록』 -

<보기>

ㄱ.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ㄴ.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ㄷ.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

ㄹ.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3.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시대 오가작통법에 대한 내용이다.

ㄱ, ㄴ. 5가작통법은 5가구마다 1통을 설치하고, 몇 개의 통을 하나의 리(里)로 편성한 다음, 리마다 이정(里正)과 유사(有司)를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편성한 통내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거주지 이탈, 절도 등을 방지하였고, 양난 이후 조세 수취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기도 하였다.

ㄷ. 조선 시대 향촌 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유향소, 향약 등이 있다. ㄹ. 향촌 내부에서 신향과 구향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왕권 강화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자 18세기 중엽 정부는 향전률을 제정하여 사족을 견제하였다.

4. 다음 발의로 개최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3권 190쪽 / 필기노트 138

쪽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중략)… 근본적 해결로써 통일적 재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의 소집을 제창한다.

- ①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 ②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 ③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 ④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4.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은 1923년에 개최된 ‘국민대표 회의’이다.

④ 외교 활동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초창기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가장 주력하였던 사업이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무장 투쟁을 주장하는 세력의 불만이 일어났고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 갈등은 국민대표 회의의 한 원인이 되었다. 국민 대표 회의에서 임시 정부 개조안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세력들은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서 대립하였다.

① 신한 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한 것은 1919년이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채택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③ 한국 국민당 조직은 1935년의 일이다.

5.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기본서 1권 278쪽 / 필기노트 56쪽**

	(가)	(나)	(다)	(라)	
연산군 즉위	중종 즉위	효종 즉위	영조 즉위	정조 즉위	

- ① (가) -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② (나) -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 ③ (다) -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④ (라) -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5. 정답 : ③

③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일어난 기해예송(1659)과 갑인예송(1674)은 현종대의 일이다.

① 조광조는 인재를 천거하여 등용하는 ‘현량과’를 주장하였고, 중종이 이를 받아들여 중종 14년(1519)에 시행되었다. ②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인한 무오사화(1498)와 연산군의 모후인 폐비 윤씨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갑자사화(1504)는 연산군 대의 일이다.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폐지는 1791년 정조 대의 일이다.

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1권 74쪽, 필기노트 17쪽**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음력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 ① 후·읍군·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 ② 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 ③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 ④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6.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동예’에 대한 내용이다.

- ① 동예는 통합된 정치 세력인 대군장이 없고 후, 읍군, 삼로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이들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 ② 국읍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한 국가는 삼한이다. ③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는 골장제는 옥저의 풍습이다. ④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편두(偏頭)의 풍습은 삼한 중에서 진한과 변한의 풍습이다.

7.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기본서 3권 68~72쪽 / 필기노트 121~123쪽**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
-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①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 ②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 ③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④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7.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1898)에서 결의한 ‘헌의 6조’이다.

- ③ 고종이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한 것은 1899년의 일이다.
- ① 독립신문의 창간은 1896년 4월의 일이고, ②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은 1896년 2월, ④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6월 25일이다.

8.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기본서 2권 263~265쪽 / 필기노트 93쪽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① 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 ②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③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④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8.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기구’는 ‘화통도감’이다. 고려는 우왕 3년(1377) 최무선의 화약 제조법에 의한 화약제조를 위해 국가기관으로서의 화통도감을 두게 되었다.

- ②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
- ① 도교 사원인 복원궁은 예종 대 건립되었다. ③ 선종 3년(1086)에 설치된 교장도감을 통해 의천은 선종 8년(1091)부터 숙종 6년(1101)에 『교장』(일명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 ④ 성종 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9.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서 3권 36쪽 / 필기노트 119쪽

- ①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 ②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③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 ④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9. 정답 : ③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파 인사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 ③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은 1882년 8월의 사실로, 갑신정변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 ① 갑신정변 이후 조선 주재 독일 총영사 부들러는 김윤식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조선이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일본)과 대륙세력(청)이 충돌하는 위치이며, 청·일본·러시아 3국이 조선의 중립을 승인·보호해야 한다는 중립화안을 건의하였다(음. 1885. 2).
- ② 갑신정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은 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군사 교환 파견 등을 요청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에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음. 1885. 3. 1, 양. 1885. 4. 15)함으로써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고 러시아의 조선 침투를 견제하려 하였다.
- ④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에 비해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일본은 청

과 담판하여 텐진 조약(1885. 3)을 맺고,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를 철수하고 장차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서로 알릴 것을 약속하였다.

10.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본서 1권 327~328쪽 / 필기노트 62쪽**

- ① 이범윤의 보고문 - 은주시청합기
-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삼국접양지도
- ③ 미쓰야 협정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10. 정답 : ②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기인 1900년(고종 37년),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도[石島, 獨島]의 행정관리를 울도 군수에게 맡기고 이의 실질적 영유를 중앙 정부 ‘관보’에 게재한 것은 ‘국제적 고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칙령은 곧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1905년(고종 42년) 이전에 이미 대한제국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는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지도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부도(附圖) 5장 중 하나이다. 여기서 3국이란 조선, 류큐(琉球, 오키나와 열도), 에조국(蝦夷國, 아이누족의 북해도 이북 지역)을 말한다. 이 지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 3국을 각기 색채를 달리하여 그렸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 섬을 하나 그리고 그 오른 쪽에 작은 섬 하나를 붙여 그렸다. 이 섬들은 모두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왼쪽 큰 섬에는 다케시마(竹嶋) 라고 표기한 다음 그 아래에 “조선의 것”과 “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또 조선도 보인다”라고 적혀 있다.

① 이범윤의 보고문은 간도 영유권에 대한 논거이다. 1903년 북간도 관리로 파견된 이범윤은 청국 관리들의 강압적인 귀화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한편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 은주 지방의 ‘사이토 호센’이라는 관리는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경계는 은기도까지임을 명기하였다(1667). ③ 일본은 3부 중심의 독립군의 항전을 탄압하고자 만주의 군벌 장쥔린과 미쓰야 협정(三矢協定)을 체결하여 중·일 공동 작전으로 독립군을 제거하려 하였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근거가 아니다.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1905. 2)를 통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이 태정관의 내탐 지령을 받고 작성한 보고서로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여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883년 조선 조정은 간도 지역 관리를 위해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파견하였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2권 41~43쪽 / 필기노트 68쪽**

초기에는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 ①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 ②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 ③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 ④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11.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서술하고 있는 화폐는 고려시대의 ‘활구’이다.

- ③ 고려시대에는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설치하였다.
- ① 장보고에 의한 청해진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신라 하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 ② 시장 감독을 위한 동시전의 설치에 신라 지증왕 대의 사실이다. ④ 이양법의 전국적 보급은 조선 후기의 사실이다.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1권 228쪽 / 필기노트 43쪽**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
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②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 ③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④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12.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정도전이다.

- ④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 경국전』은 조선 개국의 기본 정책을 규정한 최초의 법전으로,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 ① 세종 원년(1419)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하여 왜구를 근절시켰다. ② 『삼강행실도』의 편찬은 조선 세종 대의 사실이다. ③ 조선 세종 대 김종서가 중심이 되어 6진을 개척하면서 현재의 국경선(압록강~두만강)이 확정되었다.

13.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3권 111, 180쪽 / 필기노트 128, 136쪽**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협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 ① 독립운동 기지인 한홍동이 건설되었다.
- ②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 ③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④ 군사 양성 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13.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곳’은 하와이이다.

④ ‘대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독립 전쟁을 위한 군인 양성을 위해 세운 군사 양성 기관이다.

① 이상설, 이승희, 홍범도 등이 1909년 북만주 길림성 봉밀산에 최초의 독립운동 기지로 한홍동을 건설하였다. ② 권업회는 1911년 이범윤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한인 민단이다. ③ 경학사와 부민단은 서간도에 설치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2권 351쪽 / 필기노트 105쪽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컨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 ①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 ③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였다.
- ④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8세기 북학파의 실학자 홍대용이 주장한 지전설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홍대용은 지전설을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이론적 세계관을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전개하였다.

③ 홍대용은 『임하경륜』을 저술하여 성인 남성들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농일치의 군대를 조직할 것을 제시하는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① 『우서』는 유수원의 저서이다. ② 『반계수록』은 유형원의 저서이다. ④ 『북학의』는 박제가의 저서이다.

- ㄱ. 1907년 7월 21일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협박하여 순종에 대한 양위의 형식을 빌어 고종을 폐위하였다.
- ㄴ.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킨 후 1907년 7월 24일에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고 고등 관리 임용 시에는 반드시 통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ㄷ. 1909년 7월 12일에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감옥 사무 관할도 일본으로 넘어갔다.

17.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서 2권 33쪽, 92쪽 / 필기노트 74쪽**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리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좇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 (중략) ...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 ①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부농층에 분급하였다.
- ② 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 ③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 ④ 밭농사에서는 건종법이 보급되었다.

17.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 광산(금광) 개발과 관련한 사료이다.

- ① 사패전은 사전(賜田)의 일종으로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분급된 토지 종류이다. 공신 사패전과 개간사패전이 있으며 왕실 측근과 권세가에게 주로 지급되어 원 간섭기에 대규모 농장이 형성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 ② 조선 후기에는 항조 운동으로 소작인의 전호권이 성장하는 가운데 도지권이 인정되기도 하였고 지대를 납부할 때 정률 지대인 타조법에서 정액 지대인 도조법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 ③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들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목적으로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는 밭고랑에 씨를 뿌리는 건종법이 시행되면서 밭에서의 토지 생산성이 이전에 비해 급증하게 되었다.

18.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서 1권 184쪽, 2권 261쪽 / 필기노트 93쪽**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 ①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②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 ③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 ④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고려 중기 인종 대 서경파들이 서경길지설을 바탕으로 주장한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자료와 관련한 사상은 풍수지리사상이다.

- ③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는 풍수지리사상이 아닌 도교의 행사이다.
- ① 묘청 등의 서경파 세력 등은 풍수지리사상의 서경길지설을 바탕으로 서경 천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문종 대 남경(한양)길지설을 바탕으로 남경을 개경, 서경과 함께 3경으로 설치하였다.
- ④ 공민왕은 한양길지설을 바탕으로 한양으로 천도하려하였고 우왕 대 잠시 한양으로 천도하였다가 호환 등으로 인해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서 3권 274~275쪽 / 필기노트 147쪽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 (중략) ...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 『조선민족사 개론』 -

-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 ②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③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 ④ 「5천년간 조선의 열」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19. 정답 : ③

『조선민족사 개론』을 통해서 손진태는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였다.

- ③ 손진태는 진단학회의 주요 회원이기도 하였고 주로 민속학에 관심을 두었다.
-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는 신채호의 저서이다.
- ② 박은식이 장지연과 함께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고 대동교를 창시하였다.
- ④ 「5천년간 조선의 열」은 정인보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이다.

20.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서 1권 166쪽 / 필기노트 34쪽

- ①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 ②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인 홍화진이 있던 곳이다.
- ③ 요(遼)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 ④ 요(遼)와 금(金)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 곳이다.

20. 정답 : ①

- ① 고려 시대 평안도 지역에 설치된 도호부는 안북도호부로 영주(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에 설치되었다.
- ② 강동 6주 중의 하나인 홍화진은 평안북도 의주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고려 시대 정보이다.
- ③ 고려 시대 각장은 거란·여진 등 북방 민족과의 교역을 위해 설치된 무역장이다. 고려와 거란 사이의 형성된 최초의 각장은 목종 8년(1005)에 거란에 의해 의주에 설치되었다.
- ④ 예종 12년(1117)에 금나라가 요를 정벌하는 틈을 이용하여 고려는 내원성과 포주까지 수복해 압록강 이남의 지역을 완전히 우리 영토로 삼고 의주방어사를 두어 경계를 강화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